긴 겨울 방학 사교육비 '휘청'

학부모 부담 가중…일부 학원 수강료 기습 인상도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수강을 통해 앞선 교과과정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이 만연하면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힘겨워하고 있다. 학부모는 선행학습 과정 추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로 살림이 더욱 빠듯해지고, 학생은 크게 늘어난 공부량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학기 중과 달리 방학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학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기에 비해 사교육비가 크게 늘고 있다. 일부 학원은 방학을 맞아 갑자기 학원비를 올려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주부 정모(여·49·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방학 중 사교육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 늘었다. 학기중에 매달 40만원을 들여 보냈던 영어와 수학 전문학원을 계속 다니게 하고 최근 20만원을 더 들여 수학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

정씨는 "주변의 학부모들이 대개 방학 중 자녀의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 한두 곳을 더 보내고 있는 추세"라며 "딸이 선행학습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지만, 남들처럼 하지 않을 경우 뒤처질까봐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인 이모(14·광주시 동구 운림동)양은 방학을 맞아 기존의 영어와 수학 학원 외에 영어 토플 학원을 추가로 다니면서 늘어난 공부량 때문에 매일 새벽 2시까지 책을 붙잡고 있다. 고등학생도 버거워 하는 수준의 내용이지만 공부욕심이 많다 보니 '영어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양의 아버지는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애가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침에 코피를 쏟을 때면 정말 관두게 하고 싶지만, 딸이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니 말릴 도리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형제를 둔 김모(45·광주시 동구 운림동)씨 부부. 맞벌이인 김씨 부부는 자신들이 귀가하는 시간까지 애들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 방학 때면 으레 학원 수강을 늘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학기 중 40만원이던 사교육비가 배 가까이 늘었다. 김씨는 "애들을 그냥 집에 내버려둘 경우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할 것으로 우려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학원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광주지역 일부 학원이 방학을 맞아 학원 수강료를 2만~3만원씩 올려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월 소득 369만원 이하 가구 내달부터 유치원 수업료 지원

교육부 세부 계획 확정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월평균 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는 다음달부터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 2천962억원보다 39.3% 증액된 4천156억원으로 책정됨으로써 수혜 대상 아동이 지난해 20만6천명에서 3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에서 36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돼 사립 유치원생 15만2천명에게 월 16만2천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월 5만3천원이 균등하게 제공된다.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만 3·4세 아동을 둔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는 소득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져 월 최고 18만원에서 최저 3만2천400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두 명 이상이 이용할 경우에는 맏이를 제외한 아동들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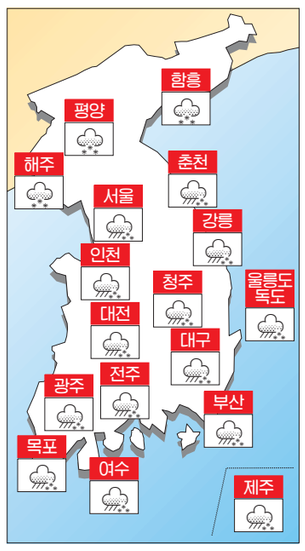
/연합뉴스

하얀 추억이 내리네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다.

1월 26일 (음 12월 8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눈	-1~5℃
목 포	흐리고 비/눈	0~5℃
여 수	흐리고 비/눈	2~6℃
완 도	흐리고 비/눈	0~6℃
구 례	흐리고 비/눈	-3~5℃
해 남	흐리고 비/눈	-3~6℃
장 흥	흐리고 비/눈	-3~6℃
고 흥	흐리고 비/눈	-2~6℃
순 천	흐리고 비/눈	-3~5℃
영 광	흐리고 비/눈	-1~4℃
진 도	흐리고 비/눈	0~5℃
전 주	흐리고 비/눈	-2~5℃
남 원	흐리고 비/눈	-4~5℃
정 읍	흐리고 비/눈	-2~5℃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4.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먼바다=남서~ 서풍 파고 1.5~2.5m

목 포 밀물 〈 07:31 19:33 썰물 〈 00:04 12:33
여 수 밀물 〈 02:04 14:09 썰물 〈 08:03 20:32

▲해뜸 07:36 ▲해짐 17:54 ▲달뜸 11:36 ▲달짐 00:5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3/1(목)
날 씨						
최저/최고	-2/3	-4/2	-4/2	-3/2	-4/1	-5/1

사장님 거짓말 1위 "다음에 꼭 놀러와"

■알바생 설문 조사

알바(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최근 전국 알바생 473명에게 '사장님의 뻔한 핑계 혹은 거짓말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23.9%(113명)가 "다음에 꼭 놀러와"라고 답했다.

수당도 없이 야근 시키면서 "오늘만 고생해 줘"라는 말은 뻔한 거짓말 2위(13.1%·62명)에 올랐다.

3위는 알바비를 미룰 때 하는 핑계로 "이번 달은 장사가 잘 안 돼서…"(12.1%·57명)가 차지했으며, 월급을 계속 밀리면서 "곧 줄게 기다려"(11.9%·56명)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주지도 않으면서 채용 공고에 '시급 5천원'(10.7%·51명)이라고 적거나, 혼내고 감시하고 괴롭히면서 "난 알바생을 가족처럼 해"(9.5%·45명)라는 말도 상위권에 올랐다.

UCC 제작·우주 관련 분야 '인기'

■올핸 어떤 알바 뜰까

2007년에는 어떤 아르바이트가 뜰까?

25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올해 가장 호황을 누릴 아르바이트는 '황금돼지' 관련 직종. 아기용품 판촉 이벤트 도우미·산후 도우미·산후조리원 청소원 등 출산이나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IT업계 최고의 화두인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츠) 열풍으로 연예인 지망생·선거 출마자 등 UCC를 개인 PR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주는 아르바이트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선거 관련 아르바이트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인 첫 우주인 탄생에 맞춘 '우주' 관련 마케팅으로 우주과학 박람회나 캠프, 학습 프로그램 관련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전공노 사무실 폐쇄 항의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조합원 50여명이 25일 정오 광주시 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공노 사무실 폐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동구청은 전공노 측이 합법노조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4일 밤 11시30분께 청사 5층 전공노 사무실을 봉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철새 절반이상 홍도·흑산도 거쳐

71종 AI 검사 모두 '음성'

지난해 한반도를 찾은 동아시아 철새를 비롯한 국내 조류 중 절반 이상이 홍도와 흑산도를 거쳐간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철새를 관찰한 결과 국내 조류의 51.8%에 해당하는 259종이 홍도와 흑산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 활동을 한 사실이 목격됐다.

홍도와 흑산도를 거친 철새들은 주로 휴식(45.6%)하거나 먹이활동(27.4%)을 했다. 관찰된 조류는 259종 9만5천105마리로 홍도 217종 6만3천664마리, 흑산도 203종 3만1천441마리이며 4~5월(봄), 9~11월(가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조류 중에는 멸종위기 1급 노랑부리백로·황새·저어새 등 7종, 2급 먹황새·물수리·참매·흑비둘기 등 15종, 천연기념물 흰꼬리수리·황조롱이·소쩍새 등 16종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목격된 종은 국내 미기록종인 꼬까울새·연노랑솔새 등 6종을 포함한 27종이며 현재까지 홍도와 흑산도에서 관찰된 조류가 총 307종으로 국내 조류의 61.4%를 차지했다.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이동한 철새 71종 969마리에 대해 AI(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28일까지 눈·비…겨울가뭄 다소 해소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눈은 28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2주가 넘게 지속된 겨울 가뭄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광주·전남은 하루 종일 흐리고,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면서 "서해안 지방은 다소 많은 눈이 쌓이고, 예상강수량은 5~10㎜, 예상적설량은 3~8㎝"라고 25일 밝혔다.

기상청은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6일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1도, 구례·곡성·순천·해남·장흥 영하 3도, 장성·나주 영하 2도 등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에는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이 남하(南下)하면서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

기상청 관계자는 "평년에 비해 춥지는 않지만 그동안 겨울 답지 않게 따뜻해서 조금만 기온이 떨어져도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어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보일러, 계량기 등도 동파(凍破)사고에 대비해 미리 점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도박 입건 청소년 1천명 넘어

폭력범죄는 줄어

사행성 오락인 '바다이야기'가 전국을 휩쓸었던 작년 한해 동안 '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전국에서 1천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입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악화로 용돈이 줄어들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입건된 소년범도 전년도 2만6천53명보다 11.5% 증가한 2만9천48명으로 집계됐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경찰 조사를 받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범은 전체 입건자 240만1천411명의 3.9%인 9만2천638명으로 전년도 8만6천14명보다 7.7% 늘었다.

그러나 사회문제화된 학교폭력에 대한 감시·단속이 강화되면서 폭력 혐의로 입건된 소년범은 2만7천460명으로 전년도(2만7천641명)보다 소폭 줄었다. 또 사행성 게임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된 소년범은 2005년 25명에서 지난해 1천24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게임 승자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왕(王)게임'이 성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성폭력사범도 1천176명에서 1천599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